‘지구 회복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도, 기후변화주간 맞아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
26일 NH농협은행·전북은행과 탈석탄 금융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가 제13회 기후변화주간(4.22~4.28)과 제51회 지구의 날(4.22)을 맞아 2050 탄소중립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기후행동(기후친화적 생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도민의 이해와 공감이 필수이며, 사회 전반의 변화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탄소중립을 향한 출발점으로 삼고, 탄소중립 이슈화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전국 규모 범국민 캠페인 추진에 동참한다.

20일 전북도는 도청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등 134개 공공기관, 호남제일문 등 10개 지역상징물, 공동주택 249개소(9만1,732세대), 대형건물 등 총 393개소를 대상으로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일제히 소등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자율적으로 밤 8시부터 10분간 가정세대에서 소등을 실시하면 된다.

또한, 올해 녹색아파트로 공모·선정된 전주시 효자휴먼시아아파트 등 12개 아파트에서 지구의 날 소등행사와 함께,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ZERO 플라스틱 캠페인’ 등 여러 실천 운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제13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전북도와 NH농협은행, 전북은행은 오는 26일 탈석탄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세부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주범인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 ▲석탄금융 축소와 기후금융 확산 환경조성,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미참여, ▲석탄화력발전 건설 채권 미인수, ▲탈석탄 확산과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등 총 4가지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지구 회복은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처럼 도민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국 최초 사업 전북한우 품격↑

암소개량 사업 이어 부모 소 확인검사 지원도 최초 추진

전북도가 전국 첫 암소개량 사업에 이어, 가축시장 부모 소 확인검사 지원 등 연이은 대한민국 최초 타이틀로 국내 한우 시장을 이끌고, 전북한우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한우개량 정책 일환으로 ‘가축시장 부모 소 확인검사 의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모 소의 일치율은 80%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한 한우의 정확한 이력 관리 어려움으로 도는 올해부터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부모 소 확인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무화와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축협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 친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나섰다 .

12억원의 신규예산을 확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가축시장 운영기관과 농가에서 부담하면 된다.

확인검사 비용은 두당 2만원 남짓으로 농가는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친자 검사가 가능하다.

앞서, 전북도는 그동안 수소 위주의 한우개량 정책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암소개량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이른바 ‘좋은 암소 선발·관리 사업’이다.

도축성적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한 암소나 도내 암소 전두수의 유전능력을 평가해 상위 20% 이내인 4만9,000두의 암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2019년부터 매년 번식우 사육농가 300호를 대상으로 사육하고 있는 암소 전체의 유전능력 분석 및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가 스스로 좋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유호상 기자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 가운데,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수목 등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행위이다.

특히, 도는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활용해 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잘라가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시·군 합동으로 15개반 45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등산로 및 백두대간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산불감시와 병행해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경호 도 산림보호팀장은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에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 맞춤형 사례관리로 취약계층 건강 증진 도모

전북도가 ‘의료급여사업’ 및 ‘맞춤형 사례 관리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적정 의료 서비스 이용 등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나선다.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수급자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과소 이용자에게는 의료 접근성 보강을 통해 수급자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45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했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수급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수급자에게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적정한 의료 이용법 안내, 약물 부작용과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한다.

특히, 의료기관 방문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과다 이용자는 최우선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등)의 과소 의료 이용에 대해서도 조기 치료가 이뤄지도록 개입하는 예방적 사례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기 입원자의 경우 단순히 주거와 생활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입원한 수급자를 퇴원 권고해 병상을 확보하고, 퇴원자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자에게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도록 권유해 그 결과에 따라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오랜 기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치료 가능한 의료 시설로 안내하는 등 건강 전문가로서 가이드 역할도 한다. /유호상 기자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 캠페인

전북도, 9개 기관과 업무협약… 재활용품 교환사업도 추진

전북도가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도는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정재웅), 전북도 새마을회, 시·군 및 새마을회 시·군지회(군산시, 순창군, 부안군) 등 9개 기관과 함께 ‘2021년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맺은 기관은 아이스팩 수거 홍보활동을 통해 폐기되는 아이스팩을 수거, 세척 및 선별 후 지역 내 전통시장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인 등에 무상 공급해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은 신선식품 배송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편의를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은 늘어났지만,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의 약 80%가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소각·매립되고 있으며, 15%는 하수구로 그대로 배출되며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와 유관기관이 손잡고 아이스팩 재사용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군산시와 순창군, 부안군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와 세척·소독용품을 지원한다.

이어, 시·군은 주민들로부터 아이스팩을 수거·보관하면, 새마을회는 아이스팩을 세척·소독하는 자원봉사를 자원하고, 각 시·군에 이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해 재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한편, 도는 올해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종이팩과 폐전지를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캠페인을 아이스팩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주민들이 아이스팩 5개를 모아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10ℓ)로 교환해 준다.

폐건전지 7개는 새 건전지 1개로 교환해 주고, 우유를 마시고 남은 종이팩은 크기에 따라 5매에서 20매를 가져오면, 친환경 화장지 1개를 지급한다.

이번에 수거하는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의 젤형태 아이스팩만 해당되며, 겉면을 씻어 건조한 상태로 종이상자 등에 담아 오면 된다.

물로 된 아이스팩은 봉지를 뜯어 물은 버리고 봉지는 비닐로 재활용 분리배출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